

말기는 믿음

오늘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말기는 삶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37 편 5-6 을 읽으십시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맡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commit 입니다.

또 시 55:22 에서도,

시편 55 :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 31 편 5 절에서는

시편 31 :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Into thine hand I commit my spirit: thou hast redeemed me, O LORD God of truth.

이 31 편 5 절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에서 부탁한다는 말이 commit 로서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life style 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은 spiritual 한 것이나 physical 한 것이나, 인생의 모든 제반사에 대해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며, 우리가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그 짐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짐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 온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짐과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style 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제반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style 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해

역대상 14 : 17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다윗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제반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짐과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영히 요동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1. 우리의 짐의 본질은 무엇인가?
2.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3. 온전히 맡기워진 상태는 무엇인가?
4. 무엇을 맡기나?
5. 100%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6. 맡김과 안식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우리를 내리 누르는 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왜 염려와 근심을 팔자로 안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 다가온 것은, 자신의 삶의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17 은

창세기 3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중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말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제 부터는 너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져라,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책임은 원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온 저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싫어도 참아야 합니다. 때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삶의 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3 : 18-19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노동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한 대로 식물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 풍작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 전망에 따라, fire 될 가망성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의 불안입니다.

창세기 3 : 19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짊어진 가장 큰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인간의 잠재 의식에 깔려 있으면서 인간 생활과 의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팔자로 안고 살아야 하는 근원적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은, 아담의 원죄를 인하여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온, 삶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남녀 노유 구별이 없습니다.

이 짐은 죄의 결과로 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벗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이 짐을 벗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죄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말기고 짐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간다고 이런 짐에서 금방 해방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 짐을 벗는 법을 매일 매일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짐을 벗어 말김으로 짐에서 해방되는 법을 매일 매일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 자기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말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긴다고 하는 것은 commit 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무슨 일을 행하는 것, to practice something, 그래서 commit sin 하면 죄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to give in authority 해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말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왕되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삶의 모든 제반사를 지도, 관리,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너의 모든 삶을 지도 관리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to give in authority,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맡기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에게 완전히 맡겨 버립니다. 맡기고 난 후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만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으려 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완전히 이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땐 모든 걱정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모두 말긴다고 기도해 놓고선,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시 싸 가지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걱정을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주일 날 교회에 와 기도하면서 모두 다시 맡깁니다, 집에 갈 때는 모두 다시 싸가지고 돌아 갑니다. 매일 풀러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풀러 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신앙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전에 Tampa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분은 저와 한 교회에 다니던 K 집사이었습니다. K 집사는 그때 50 대 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STRESS 로 K 집사에게 간경화증이 발병하였습니다. 간경화가 생긴 경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회사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불황이 닥쳤습니다. 회사는 부득불 인력을 줄여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바람에 오래 일한 사람들도 감원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 집사도 곧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 집사는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대학에 들어갈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K 집사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젊다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했다면 그만두고 나왔겠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몸이 점점 아위에 갔습니다. K 집사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내니까 정신적 STRESS 로 인해 간경화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고 물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 후에 많이 차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이제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K 집사는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였습니다. 맨손체조를 하다가 실신하여 그 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오랫동안 독한 약을 많이 먹어 위벽이 약해졌는데, 체조를 할 때 위벽에서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터졌다고 하였습니다. 위로 피가 쏟아져 죽었습니다. K 집사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때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남긴 채 영원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K 집사가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정신적 STRESS 때문입니다. 이 STRSS 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염려, 걱정, 두려움, 분노, 낙심, 배신감 등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STRESS 는 그때 그때 벗어 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합니다.

저는 얼마전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주일날이면 교회에 꼬박 꼬박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의 문제점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10 년마다 한 번씩 사업에 큰 문제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처음에는 잠도 못자고 분개도 하지만 얼마 지나면 정신적 안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할 때도 문제에 휩싸여 있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여유가 생겨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맨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말하길,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감사하지” 하면서 , “주님, 이젠 저를 더 이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지 마세요”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잘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바로 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믿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다시 교회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거의 잊어 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짐을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역대상 29 :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 :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군왕인 다윗이 왕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왕권의 권세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도, 권세도, 위엄도 다 주께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니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맡으시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맡기니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살이의 모든 제반사를 우리의 왕이신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온전히 맡기워진 상태인가?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 가야 두 손을 번쩍듭니다.

그전까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자신이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벗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모두 맡긴 후 낭패하지 않을가 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문제 앞에서 곧바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불안해질 때 사람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 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에 자신의 짐을 얹어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느니 보다는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에 있어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아직도 그 짐이 자기 어깨위에 얹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불신앙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과 함께 평안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기는 첫째 조건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염려 근심은 물러 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다는 증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앞에서 마음에 평강이 넘쳐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끊기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8 : 6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문제가 이양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평강입니다.

다 말기위지면 평안이 옵니다. 한번 죽지 두 번 죽냐? 떳떳하게 살다가 죽는거다.

안 이루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갑니다. 신앙인은 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인생살이에서 몇 번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이런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의 해결도 못받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모두 말기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말기고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돌아 올 기약없이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반란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신발도 못신고 창급히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사독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왕을 따릅니다. 여호와의 궤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왕의 왕위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하 15:13-29 에 보면 다윗왕이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5-26 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100% 맡긴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왕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5 :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무엘하 15 : 26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 가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이 계신 데를 보겠거니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 이것이 100%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100%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차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란은 평정되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일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55 :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인생 살이를 하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몇번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원리적인 문제임을 이해하시고,

열른 두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기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버려 두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말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말기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말기는 삶이 바로 안식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입니다. 먼저 저녁에 쉬고 아침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 보십시오.

창세기 1 : 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먼저 저녁에 쉬고 아침에 일을 하는 것을, 7 일에 적용하면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6 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안식함으로 창조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2 :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 :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고 난 다음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육일동안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6 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 :3 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복 주셨으니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먼저 모든 것을 자신이 예비한 후 안식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오면서 안식은 날을 지키는 것으로 모형적으로 제시되고, 안식의 개념이 먼저 일을 하고 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 :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 : 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 :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 :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 : 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먼저 6 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 7 일에 안식하라는 모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날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던 안식의 개념은 폐지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 :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 :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약은 안식이 날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지만, 신약의 성도에 있어서 안식의 개념은, ‘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안식의 개념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식 속에 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6 일은 일하고 제 7 일에 안식하는 이런 모형(Type)적인 안식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일주일 내내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일평생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은혜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므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말기는 것에 적용하면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필요와 해결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들 중에서도 이것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합니다. 문제를 해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불신자 시절의 삶의 스타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궁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눈이 빨갛 채로 뛰어 나갑니다. 이것은 믿지 않았을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짐을 다 맡기고 주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네 혼자서 모든 문제와 짐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이 뜻입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선 먼저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 외엔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 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뛰어 나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법석 떨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말길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어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르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안식하고 그후에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제반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해

역대상 14:17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다윗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